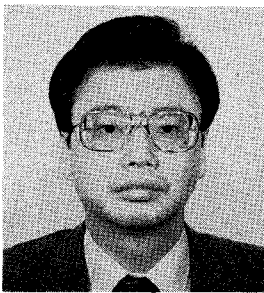




당뇨병에 대한 경험은 환자마다 모두 제각기 다르다. 사람들 모습이 서로 각각 다르게 생겼듯이 당뇨병의 양상도 천차만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 당뇨병환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당뇨병성 합병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엄격하게 당뇨조절을 할수록 그 가능성은 적어지지만 어떤 경우에 합병증이 올 것인가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당뇨병성 기타 급성합병증



홍관수

(가톨릭의대·내과)

급성합병증은 당뇨병이 처음 진단된 환자로부터 오래전부터 당뇨병을 앓아오던 환자까지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라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당뇨병을 오래 앓음으로서 서서히 진행되어 생기는 만성합병증과는 달리 조기발견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로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저혈당증, 당뇨병성 케톤산증, 감염증 및 기타합병증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기타 급성합병증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인슐린이 임상적으로 사용하기 이전에는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나 감염병같은 주로 급



급성합병증은
당뇨병이 처음 진단된 환자로부터
오래전부터 당뇨병을 앓아오던 환자까지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라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당뇨병을 오래 앓음으로서
서서히 진행되어 생기는 만성합병증과는 달리
조기발견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로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성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나 **인슐린사용과 함께 이러한 치명적인 급성합병증은 급격히 줄고** 사람인슐린과 같은 더욱 발전된 인슐린의 개발로 인슐린치료에 따른 여러가지 기타합병증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날로 늘어가는 당뇨병환자와 식생활의 변화로 아직까지 당뇨병의 급성합병증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당뇨병성 급성합병증중 기타합병증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흔들려보임(노안현상)

처음으로 당뇨병이 진단된 환자나 당뇨조절이 불량하여 인슐린치료를 시작한 환자에서 **혈당은 좋아지는데 시력이 감소하고 시야가 흔들려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환자들이 당황해 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눈자체에 손상이 오기 때문이 아니고 대개 수일

내지 수주내에 없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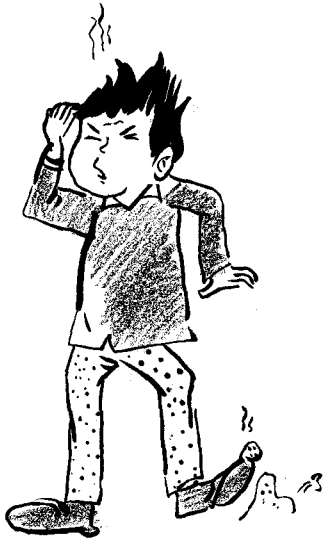
혈당이 갑자기 조절되면 혈액내 삼투압의 변화가 일어나 신체내에서 수분의 이동이 일어난다. 즉, 혈액내 삼투압이 급히 떨어지면 아직 평형상태를 유지못하고 삼투압이 높아 있는 눈의 렌즈속으로 수분이 들어가게 된다.

렌즈에 수분함유량이 많아지면 렌즈의 선명도가 떨어지고 굴절력에 이상이 생겨 시력이 떨어지고 흔들려 보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렌즈속으로 이동한 수분이 다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이 때 **안과에 찾아가서 바로 안경을 맞추지 말고 당뇨조절을 적절히 해가면서** 시력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인슐린성 부족

위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인슐린치**



료로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면 신체내 수분이동이 일어나 몸 전체가 푸석푸석하게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 주로 발목에 부종이 잘 생기며 젊은 여자층에서 더 흔히 발생한다.

간혹 일시적으로 이뇨제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부종이 심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저절로 소실된다.

당뇨는 좋아지나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악화된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아주 흔한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이다. 어떤 경우 혈당조절이 갑자기 잘 되면 일시적으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악화되는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도 일시적이며 아무런 치료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증상 심근경색증

무증상 심근경색증은 갑자기 나타나긴 하

지만 근본적으로는 오랜 기간동안 당뇨병을 앓아서 동맥경화증과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이에 동반된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다.

평생동안 쉬지않고 초침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한번씩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놀라운 심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읊고 노래했던가? 그러나 이러한 심장의 목줄을 단단히 쥐고있는 것이 바로 관상동맥으로서 심장근육에 계속적인 영양공급을 해준다. 불편심만한 이 관상동맥이 막히면 제 아무리 튼튼한 심장근육도 종이깍처럼 되어 버린다.

당뇨병으로 인해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생기면 협심증이 발병**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협심증이 생기면 흉통, 심계항진(가슴이 두근거림), 운동시 호흡곤란등의 증세가 나타나나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으로 자율신경의 기능이 약해지면 이러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아무런 증세없이 갑자기 무증상심근경색증이 일어나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뇨병환자에서 정기적인 심전도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보다 정밀한 심장검사가 필요하다.

인슐린 알러지(알레르기)

단백인슐린에 대한 전신적인 알러지는 매우 위험하지만 극히 드물고 인슐린을 주사한 부위에 가려움증이나 발적등의 가벼운 증세가 대부분이다.

“

지방위축은 순도가
높은 인슐린이나 사람인슐린을
사용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하고 한번
주사한 부위는 적어도 1-2개월이내에
다시 주사하지 않는 것이
예방책으로 중요하다.

”

이러한 인슐린알러지는 인슐린의 순도가 떨어지거나 동물인슐린을 사용할 때 생길 수 있고 최근 합성된 사람인슐린을 사용하면 인슐린알러지의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1/1,000단위부터 서서히 증량시켜 탈감작 시키므로 인슐린알러지를 치료할 수 있다.

지방위축과 비후

지방위축은 인슐린을 주사한 부위의 피부 밑에 있는 지방조직이 소실되어 피부가 함몰되는 현상으로 주로 젊은여성에게 나타나며 면역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슐린의 부작용이다.

순도가 높은 인슐린이나 사람인슐린을 사용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하고 한번 주사한 부위는 적어도 1-2개월이내에 다시 주사하지 않는 것이 예방책으로 중요하다.

지방비후는 주사한 부위가 두꺼워져 마치 뽀빠이근육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런 현상도 순도가 높은 인슐린을 사용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으며 이런 부위에 인슐린을 주사하면

인슐린 흡수가 일정하지 못하게 되어 혈당 조절이 불량해질 수 있다.

인슐린농양

인슐린농양은 부주의한 주사방법으로 인해 주사부위에 농양이 생길 수 있으며 간혹 1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항생제 치료로 낫는 작은 경우와 수술적처치를 요하는 큰 경우도 있다.

성기감염

당뇨병환자에서 성기감염이 자주 발생되는데 당뇨병에서는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일반적인 감염병이 잘 생기는데 특히 성기에 많은 감염이 잘 생기는 이유는 소변에 당이 많아 세균이 더욱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당뇨병에서의 감염병도 조기발견하여 조기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